

검은碑 어떻게 할 것인가 ?

시 민 토 론 회

2023년 2월 28일 (화)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검은碑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토론회

상무관 설치 검은碑 작품 진행경과 보고

광주광역시 5·18선양과장 / 강은순

상무관의 검은碑 존치를 위한 발제

치유예술가/주홍

상무관의 검은碑 어떻게 할 것인가?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홍성칠

□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토론회 개최 및 토론자 소개	사 회 자
15:05~15:10	5'	○ 검은비 작품 경과보고	광주시(5·18선양과장)
15:10~15:40	30'	○ 검은비 어떻게 할것인가? 원고 발제 (각 15분)	발제자(2명)
15:40~16:00	20'	○ 토론자 발표(각 5분)	토론자(4명)
16:00~16:30	30'	○ 토론자 상호 이야기 나눔	발표자, 토론자(6명)
16:30~17:00	30'	○ 함께 이야기 나눔 (참석자 발언)	참석자 전원
17:00	-	○ 시민토론회 종료 선언	사 회 자

상무관 설치 검은비 작품 진행경과 보고

광주광역시 5·18선양과장 / 강은순

○ 제38주년 5·18기념행사 상무관 프로젝트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개최

⇒ 상무관 프로젝트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개최 과정

- 정영창 작가는 2018년 4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 5·18기념행사 상무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민예총에도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를 요청
- 행사위와 민예총은 이를 승낙하면서 정영창 작가는 검은비 작품을 상무관에 설치하였으며, 민예총은 오월어머니 초상화 10점을 함께 전시

⇒ 상무관 프로젝트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 전시기간 : 2018. 5. 18. ~ 6. 17. / 1개월
- 전시내용 : 정영창 작가 검은비 작품 1점, 오월어머니 초상화 10점
- ※ 오월어머니 초상화는 전시기간인 5.28. 개별전달 완료

○ 2018. 7. 4. : 1차 연장 요청 (작품 전시)

⇒ 상무관 프로젝트 전시종료 이후에도 작품이 존치되고 있어 광주시는 비엔날레 종료일 까지 전시 연장 요청

- 연장기간 : 2018.7.17. ~ 2018.11.11.(광주비엔날레 종료일)

※ 정영창 작가 전시참여승낙서 아시아문화원장에게 제출 (2018.7.13.)

· 전시조건 : 작품출품, 작품운송 반입/반출, 작품설치 및 철거 명시

⇒ 2018.7.17. : 아시아문화원 2018.11.11.까지 "상무관 전시 연장운영" 승인

○ 2018. 11. 12. : 2차 연장 요청 (작품 보관)

⇒ 광주비엔날레 종료 이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전시작품 관련 보관 및 연장 관련의 건"으로 작품 보관 기간을 2019년 5월 까지 연장 요청

- 작품보관 연장 요청 기간 : 2018. 11. 12. ~ 2019. 5. 31.

⇒ 정영창 작가 : 일시존치 요청에 따른 **이행각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아시아 문화원장에 제출 (2018.11.22.)

- 각서 내용 : 일시존치 기간 만료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즉시 따른다"는 일시존치 조건

⇒ 2020. 3. 26.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시에 상무관 설치전시물 후속조치 요청

- 검은비 작품 일시존치(보관) 기간 종료와 "2020 옛전남도청 시민개방 사업, 옛전남도청 복원공사 준비"를 위하여 광주시에 상무관 설치전시물 후속조치 요청

○ 2020. 4. 3. : 3차 연장 요청 (40주년 상무관 개방행사)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검은비 작품은 5·18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40주년을 맞아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전시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검토의견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전시 협조 요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간 변경 승인 및 설치물 이전 요청 (2020. 6. 3.)

- 승인내용

- 연장 기간 : 2020. 5. 16. ~ 7. 15.까지
- 연장 조건 : 2020.7.15.이후 건물복원공사 준비(20.12월)에 따른 설치물 (검은비 작품) 이전 요청

○ 정영창 작가 2020년 광주시에 작품 기증 의사 밝힘 (언론보도 상)

⇒ 市 회신 내용 : 2020.7.30. 정영창 작가 e-메일로 송부

- "작품의 규모가 방대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수장고) 및 이전설치를 위한 대체장소 확보가 어려워 우리시에서도 인수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광주시 의사 전달

○ 2020. 9. ~ 2022. 8. 옛전남도청 복원공사 연기, 작가 독일거주로 검은비 작품 상무관 일시존치(보관) 중

○ **정영창 작가 2022년 9월 광주시 동구 은암미술관 작품전시회에 작품 전시를 위하여 입국**

- 2022.09.23. : 정영창 작가와 광주시 관계자 1차 의견 교환
- 2022.10.11. : 정영창 작가와 관련기관 2차 의견 교환

⇒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 차이 확인

- ※ 관련기관은 작가에게 “2022.12.31.까지 작품 회수 요청” 공동명의 내용증명서 전달
 - 공동명의 :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 **2022.10.28. : 정영창 작가 광주시 방문 검은비 작품 관련 중재안 제출**

⇒ 상무관에 설치된 검은비는 추모비이며, 오월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소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리고 상무관 복원 공사에 동의 협력하겠다는 내용과 4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중재안을 41명의 동의서명부와 함께 제출

○ **2022.11.4. : 중재안 검토 결과 공문 회신 (정영창 작가 e-메일)**

⇒ 광주시, 전당, 행사위는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
내용증명서에 따라 2022.12.31.까지 작품 회수 재요청

상무관의 검은비(碑) 존치를 위한 발제

치유예술가/주홍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자 시민의 한 명으로 검은비(碑) 존치에 대한 발제를 합니다. 이 발제는 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사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주 민주광장 근처에는 상무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신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태극기에 덮인 관이 가득 놓여있었고 통곡 소리와 향냄새가 진동했던 상무관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신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5·18 당시, 집에 오지 않는 언니를 찾아 그 상무관을 갔습니다. 언니가 저 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뻑뻑한 관들과 향냄새, 가족의 시신을 찾고 관을 붙들고 우는 통곡 소리를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38년이 지난 2018년, ‘검은비(碑)’가 상무관에 전시되기 전까지 상무관 근처는 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무서움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상무관의 장소성을 살려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碑)’작품이 전시되고 이당금 배우의 씨김 퍼포먼스에서 시민들과 함께 울고 흰 쌀 한 봉지를 받아 나오며 다시 상무관을 찾을 수 있었고 무서움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가 상무관이라는 장소에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 쌀 한 알 한 알에 검은 유화물감을 칠해서 붙인 가로 8.5m 세로 2.5m의 스케일의 작품, ‘검은비(碑)’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깊은 블랙에 압도되는 추상 작품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쌀알 하나하나가 검은 광택을 내며 빛에 따라 반사되어 헤아릴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작품입니다.

독일에서 인권 화가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는 낯선 유럽에서 아시아인, 한국인으로 외롭게 작업하며 살았습니다. 쌀이 주식인 민족, ‘쌀’은 생명을 상징하는 정영창 작가의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검은비(碑)’는 한 알의 쌀이 한 사람이 되고 쌀 한 톨이 별이 되어 존재를 드러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주광장에 모인 광주시민들처럼, 마치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 시민들처럼! 함께 작품을 보던 시민들은 감탄했고 저절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작품 앞에서 내면의 씻김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작고하신 미술평론가 성완경 선생님도 ‘검은비(碑)’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라고 감탄하셨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인, 김준태 시인은 광주의 영혼이 깃든 상징적인 몸이라고 하시며 상무관의 ‘검은비(碑)’ 존치에 앞장서서 철거를 막고 나섰습니다.

이 ‘검은비(碑)’ 작품을 상시에 볼 수 있게 상무관의 문을 열어주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혹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싶을 때 ‘검은비(碑)’를 찾아가 울 수 있는 장소가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있었습니까. 광주에는 통곡의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정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상무관은 통곡할 수 있는 곳 씻김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곡으로 다시 살아낼 힘을 얻고, 오월 영령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상무관만큼 맞는 장소는 없으니까요.

정영창 작가는 ‘아무 대가 없이’ 광주시민에게 ‘검은비(碑)’를 헌사 했습니다. ‘이미 시민의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무관을 열고 시민들에게 ‘검은비(碑)’ 작품 관람의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헌화하고 묵념한 이 ‘검은비(碑)’ 작품을 처음 계약대로 철거할까요? 아니면 상무관 원형복원공사에 포함시켜 계속 광주시민이 헌화하고 묵념할 수 있게 할까요? 작가는 이미 시민의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찾아가 볼 수 있게 오픈하고 생각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검은비(碑)’ 작품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리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전당은 다시 상무관을 개방하고 직접 작품을 마주하고 시민이 판단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자는 그 작품을 직접 봤기 때문에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작품을 본 적이 없는 시민들은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명작을 스스로 파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을 복원하려 하는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복원 사업을 이유로 정신과 보물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민들이 작품을 직접보고 판단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폐기될까 우려됩니다. 작가가 아무 대가 없이 시민에게 헌사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법의 잣대만 들이밀며 헌신짝 취급하는 행태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집단지성의 판단으로 이 검은비(碑)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관의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철(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제문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서 개최한 ‘검은비’ 이전(회수) 기자회견 자료와 2022년 11월 26일 검은비 존치를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모임(이하 존치모임)에 발표한 성명서를 참조함.

□ 논란의 요지

- 존치 / 철거의 ‘검은비’ 논란 이면에는 이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과 기준이 작용하고 있음. 가치의 대립 보다는 문제해결의 기준이 달라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 존치의 입장은 작품의 가치와 예술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전 철거의 입장은 사적지와 공적(유)공간 전시와 활용에 대한 공적인 약속과 신뢰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공간)이며 사적지인 상무관의 이용과 활용, 그리고 중장기적 관리와 사용계획은 상무관의 성격과 정체성에 맞게 합리적 절차와 합의에 의해 운영됨. 따라서 검은비 논란 해법의 기준은 공적인 약속과 신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존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 검지, 엄지 등 손가락은 손의 일부. 손 전체의 일부로 손가락 있고, 손가락의 이름, 기능 등 정체성은 손과 함께 또는 손의 일부로서 봐야 되는 것처럼, 상무관도 같은 이치. 상무관은 5·18최후항쟁지로서 장소, 스토리, 정체성에서 옛전남도청의 주요한 구성이고, 옛전남도청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음.¹⁾
- ‘상무관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38년간 방치되었다’. ‘무책임할 정도로 38년간 방치된 그 곳’ ‘검은비가 세워져서야 개방된 상무관’ ~ ‘검은비는 최초로 상무관을 시민에게 개방해 망각에 묻혔던 기억과 정신을 새로이 되돌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등의 존치모임 주장에 전혀 동의 할 수 없음.
- 상무관은 1998년 5·18 사적지로 지정 되고도 2011년까지 전남경찰청 남악 이전까지 무도관으로 사용되었고, 상무관을 추모와 계승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모 분향소’ ‘헌혈의 날’ ‘시민정신 재현 추모제’ 등이 개최 되었음.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리모델링 시기인 2015년까지는 분수대를 제외한 전 공간 사용이 중단 되었고, 2016년부터 개방 및 운영이 예정 되었음.²⁾

1) 상무관은 2011년 전남으로 이전까지 전남경찰청이 관장하다 ACC로 이관. 이후 옛전남도청으로 일원화. 현재는 ACC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5관)으로 되어 있음

- 검은비 1차 전시 시기는 옛전남도청 전체가 처음으로 개방된 시기였고, 2차 개방도 그랬으며, 같은 시기에 옛전남도청 회의실 1층과 2층 강당에서는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여러 작가들의 전시와 극이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음.
- 상무관 원형이 존재하는 한 상무관의 역사와 흔적, 그리고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정신과 열은 사라지지 않을 것. 의미와 정체성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임. 검은비로 인해 개방되고 추모와 통곡의 공간으로 거듭나 역사적 장소로 재생되었다는 존치모임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다르며 검은비를 중심으로 상무관을 바라보는 주관적 입장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 ‘이제까지 복원계획이 공개된 적이 없다. ~ 상무관을 어떤 내용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검은비 는 광주시민에게 무상 헌정되었다’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
- 복원계획은 그동안 기본계획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분기별로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으며, 책자와 문서 등으로 여러 단체와 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복원추진단을 한 번만 방문하거나 문의해도 바로 알 수 있음)
- 검은비 헌정도 작가와 존치모임의 일방적 주장. 광주시민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기관, 일테면 광주시나 구청, 의회나 교육청,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비엔날레재단, 나아가 아시아 문화전당 등 어떤 기관이 헌정을 받았는지?. 주장과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기증과 헌정의 절차와 인정이 공식화 되지 않았음. 오히려 광주시는 여러 검토 끝에 받을 수 없다고 작가측에 통보했고 입장도 밝힘.
- 검은비 존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검은비와 상무관의 개방관계, 옛전남도청복원과 검은비 존치관계, 검은비 헌정했다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작가와 존치모임의 주장임.

□ 신뢰와 약속이 문제의 본질이며 우선

- 검은비 작품은 2018년 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최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메인 작품으로 상무관에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시하는 상무관 프로젝트³⁾
- 5·18 기념행사 주간 한달 전 작가측의 요청으로 행사위는 당시 민예총 회장(허달용)과 민미협 회장(조정태)에게 검은비 전시 계획을 설명하고 상무관 프로젝트에 부합한 공동전시를 제안하며 상무관 프로젝트가 추진, 전시 되었음.

2)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기본계획 초안에는 죽음이 하늘로 승화하는 의미를 담아 상무관의 지붕과 바닥을 통째로 걷어 내고 원통형 철제 구조물(작품)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3년간의 투쟁과 싸움으로 현재의 모습을 남길 수 있었음. 도청 일원의 다른 기념관에 비해 활용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

3)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는 상무관 내 검은비 설치 작품과 오월 어머니(유족)들의 초상화 10여점 이 전시되고 개막행사로 이당금 배우의 씻김 퍼포먼스로 구성.

-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잡고 갈 대목은, 유족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고,⁴⁾ 지금까지 강력하게 회수를 요구하고 있음. 역사적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적지이며 국가적 공유공간인 상무관을 대하는 유족들의 입장과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상무관 프로젝트 추진은 13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행사위원회, 140만 시민을 대변하는 광주시, 정부를 대신한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공익적 기관, 공적 시스템이 가동되어 규정에 의한 절차와 합의, 약속이행을 담보로 성사된 결과물. 2차, 3차 연장도 이러한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에 매번 약속서, 이행각서 등 최소의 근거를 남기는 것. 이는 약속과 신뢰의 근거이며 보증서 임. 일시적 전시와 항구적 전시는 기획부터 전시까지 전혀 다른 절차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한시적 전시는 종료 후 회수 또는 철거를 전제로 하는 암묵적, 관례적 합의를 바탕으로 됨. 이행 합의서가 있는 조건에서 당연히 합의서대로 이행해야 함.
- 존치가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존치를 위한 절차, 협의, 또는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거쳤어야 함.⁵⁾
- 4차까지 연장하는 동안 존치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2020년에 갑자기 언론에 존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그동안 이례적으로 연장에 동의했던 주최 기관들을 무시하는 행위. 당시 함께 참여했던 유족 어머니들, 주최 기관들과 얼마나 협의하고 또 어떤 시민적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음.

□ '중재안'⁶⁾과 '검은碑 철거는 5·18 정신의 후퇴다'에 대한 반론

- 일반적으로 중재안이라 함은 제3자나 상호 교차점에 있는 자가 양측이 서로 양보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조정가능한 안을 제시,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해결 방안의 한 형태.
- 그런면에서 작가가 제안 한 안은 중재안이라기 보다는 누가 봐도 존치안 임. 상무관 복원과 향후 활동방안(콘텐츠 전시 포함)에 검은비 존치를 전제로 논의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검은비는 상무관과 상무관 내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원형이 아니며 상무관의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작품. 관람하는 사람에 따라, 시대적 감성과 트렌드에 따라 느낌과 감정, 영감이 달라질 수 있음.

4) 10명에 한정해서 그것도 상무관 안에서 전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어머니들의 의견에 당시 허달용 민예총 회장이 대표해서 한달 간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행사위, 문화전당, 어머님들과 약속함.

5) 최초 주최인 행사위, 연장요청 주최인 광주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관람자 설문이라도 받았어야.

6) 2022년 10월 27일 정영창 작가는 광주시에 40여명의 서명을 받은 중재안을 제출 - 1)검은비는 벽면으로 이동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상무관 복원사업에 검은비가 포함되어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하며 3)검은비 설치와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작가와 협의해야 하며 4)검은비 이동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청복원 비에서 부담한다.

- 작품성과 미학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이 우선이며, 원형복원 전제하에 활용 방안과 콘텐츠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안임. 특히 모든 비용을 복원비용으로 부담하라는 요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임.
- '검은비 철거는 5·18 정신의 후퇴다'도 동의할 수 없음. 철거를 주장하면 검은비의 작품적 위상, 추모비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미학적 관점과 안목이 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 검은비 존치 / 철거 논란은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의 논쟁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과 신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임.
 - 상무관이 상시개방 되지 않고 있다고 상무관의 가치와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또 상무관만 독립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상무관의 의의와 의미를 더욱 높게 간직하고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검은비는 약속대로 이전, 회수해야 함.
 검은비가 향후 상무관 활용의 하나의 콘텐츠로써 포함되어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항구적 존치를 전제로 한 상무관 활용방안 논의와 협의는 동의 할 수 없음.
 - 혹여 오늘 토론이 검은비 창작에 혼은 담아 인고의 노력을 쏟아 부은 작가를 외면하거나 검은비의 예술적 가치와 미학적 의의에 흠집을 내어서는 안되며 추호도 그러한 의도가 없음.